

## 에이즈 감염자 관리와 원지간호

황 유 성 / 적십자 혈액사업연구소 기술연구실장



에이즈에 관한 세계최대규모 모임인 세계 에이즈대회 제11차 회의가 7월 7일부터 일주일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의학전문가와 각계인사 등 세계 125개국 1만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이 대회는 다른 에이즈 관련 회의와는 달리 정장을 한 과학자들과 짧은 반바지 차림의 매춘부, 동성연애 시위자, 에이즈 환자들이 한데 어울려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에이즈 문제와 관계하고 있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제11차 국제 에이즈 컨퍼런스 참가는 귀중한 경험이었다. 다른 어느 학술대회가 하나 혹은 몇 개의 학회 중심으로 개최되는 것과는 달리 에이즈컨퍼런스는 에이즈와 관련된 세계의 모든 학회, 단체, 전문가, 사회사업가, 자원봉사자, 의약품회사, 감염자가 참가하여 의논하는, 말뜻 그대로 CONFERENCE(협의회)로 운영되었다.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세계 125개국에서 약 15,000명의 회의참가자, 1,000명의 전시참가자, 1,000여명의 언론이 모여으며, 강연과 구두 혹은 포스터 발표를 합쳐 5,380개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또 회의 전후와 회의기간에 본 회의장이 아닌 인근 장소에서 열린 satellite(위성) symposium만도 70여개일 정도의 대규모 회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의료계, 학계와 공공기관, 언론기관에서 30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내 현황과 연구동향을 발표하고, 에이즈 관리와 예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각기 소속기관이 다르고, 워낙 큰 회의여서 한국사람들끼리도 서로 만나지 못할뿐 하였는데, 7월 6일(토)에 출발하는 밴쿠버 직항 비행기에서 모두 만나 서로의 일정과 숙소를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밴쿠버에 도착한 6일에도 위성 심포지움이 하나 있었지만, 주 일정은 오전, 오후의 위성 심포지움과 오후에 개막식이 있는 7일(일요일)부터 시작되었다. 필자는 7일 오전부터 시작된 적십자연맹 주최의 에이즈관계자회의(7월7일~10일)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19개국의 적십자사에서 참석하여 적십자연맹과 각국 적십자사의 에이즈 예방교육과 감염자 관리활동을 발표하고 향후 발전대책을 모색하였다.

이어 시작된 개막식은 GM place 체육관에서 2시간여 동안 거행되었는데, 주최자의 인사와 주지사 등 귀빈의 축사 사이사이에 에이즈 감염자 혹은 예방단체 대표들의 연설이 있었으며, 캐나다의 유명한 가수, 연주자들의 공연도 중간중간에 섞여 진행되었다. 개막식장 앞쪽에는 감염자나 예방운동

단체 소속의 참가자들이 시작전부터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과연 연설이나 강연 도중에 박수나 항의를 보내는 등 진지하면서도 열띤 분위기가 시종일관 유지되었다. 에이즈 감염이 다른나라보다 적은 우리 나라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수 있었는데, 그것은 에이즈환자들의 절망과 분노, 삶에의 의지, 편히 알면서도 남편을 통한 에이즈 감염에 항거할 수 없는 제3세계 여성들의 눈물, 이런 것이 동기가 되어 추진되는 에이즈 예방운동과 치료법 개발 노력의 열정, 그런 것들이었다.

다음날인 7월 8일(월)부터는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일 4개의 기초연설과 36개의 심포지움, 4개의 소규모 발표와 수많은 포스터 발표, 7개의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다 들을 수가 없으므로 주제별로-기초과학, 임상의학, 예방관리학, 사회과학-나누어 들어보아도 윤곽이 잡히질 않고, 몇 사람이 나누어 들은 다음 모여서 정리해보아도 충분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

고 복잡한 대규모 회의였다.

사이사이에 시간을 내어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전시자들은 크게 나누어 진단관련업체, 치료제 및 용구관련 업체, 에이즈에 관한 문헌정보제공자 및 상담자, 에이즈 예방단체 및 에이즈 감염자단체들이었는데, 최신 정보와 제품들을 망라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필자에게 인상깊었던 것들은 다음과 같았다. 진단분야에서는 혈액대신 타액이나 뇨를 이용하여 에이즈 항체를 검사하는 시약, 에이즈 바이러스 핵산을 정량(viral load determination)하여 치료결과를 관찰하는 시스템, 킷화된 미량 핵산증폭을 통하여 15,000 여가지의 에이즈 바이러스 아형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장비 등이었으며, 치료제중에서는 여러가지 신약은 물론이지만, 합병증이 있는 에이즈 환자에게 충분한 영양보급을 하기 위하여 만든 조제음료가 흥미로웠다. 용구중에서는 여성용 콘돔이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에이즈 감염자 단체나 예방운동을 하는 민간단체도 수십 개가 전시에 참가하여 홍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방운동단체들은 나라별로 혹은 지역연대하여-예를 들면 남서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태평양 동서 등-, 혹은 국제적인 단체가 매우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었으며, 대만, 홍콩, 일본에서도 참가하였다. 한국인으로는 뉴욕지역의 한인들을 홍보대상으로 하는 단체가 참가하고 있었다. 이들은 단체에 따라서는 감염자와 함께 활동을 하는 것도 있었고, 감염자 중 동성애자들은 각각 별도로 예





방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시대를 찾는 사람들에게 매우 열성적으로 설명을 하고 홍보책자와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한편, 자기들끼리도 에이즈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의장 밖에서는 각국의 방송기자 등 언론에서 취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특히 CNN에서는 매일 취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세계가 금번 회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회의장 입구에서 예방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부러 요란한-마치 거리의 여성과 비슷한-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안내와 홍보를 하는 모습도 이채로웠다.

회의장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주제의 수많은 논문중에서 필자가 관심을 갖고 살펴본 주제중의 하나는 "Living with HIV"-에이즈 감염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

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주제는 에이즈감염자가 워낙 많은 나라나, 에이즈 감염자중 똑똑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나라에서는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는데 비해, 우리 나라처럼 에이즈 감염자가 많지 않아보이는 나라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지기 쉬운 주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질수록 에이즈 감염자는 큰 상처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은 에이즈예방에 장애가 될 것인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한 불리한 상황이 초래되는 이유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에 대해 무지와 오해는 예방의 가장 큰 적이다.

둘째, 이러한 불리한 상황은 대부분의 에이즈감염자 혹은 감염될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병의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를 주지

하도록 한다. 그로 말미암아 병이 깊어지고 병이 전파되도록 방지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경로로 감염되었든간에 에이즈 감염자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뚜렷한 이유없이 인도주의 정신이 망각되고 그들의 인권이 침해당한다면, 그 사회와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주제-하나는 에이즈 환자의 간호 관리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직장에서의 에이즈 문제임-의 주목할만한 조사결과가 이번 회의에서 발표되었는데, 그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에이즈 환자의 간호관리 개선에 관한 기초조사

에이즈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접촉해야 하는 간호인력이 에이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운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

들이다

브라질 한 병원의 간호조무사 95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20.4%만이 병원에서 미리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 있었으며, 53%가 에이즈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었는데, 50%는 그 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장 위험한 작업이라고 생각한 것은 정맥천자, 정맥주사, 분만 순이었는데, 놀랍게도 헌혈이 에이즈감염과 관련있다고 오해한 응답이 높았다.

베트남에서 34명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에이즈환자를 간호할 때

한편, 영국의 한 병원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344명의 에이즈환자를 그룹으로 나누어 에이즈 클리닉 간호사 3명중 내원시마다 늘 같은 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한 결과 간호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환자와 의료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고하는 보고도 있었다.

## 2 에이즈 감염자의 고용과 직장에서의 에이즈 문제

1995년에 미국 방역국에서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 1,500여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16%가

가. 직장내에서 에이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영자에게 조언을 하고 치료를 제공함.

나. 근로자에게 에이즈감염자의 권리를 알려주고 고용자에게는 고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알려줌.

다. 근로자에게 에이즈 전파경로와 예방교육을 실시함.

라. 직장내에서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과도한 반응을 경감시킴.

마. 감염자가 직장내에서 건강을 더 해치거나 차별을 당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 프로그램은 1991년에 시작하여 첫 2년동안 270명이 이용을 하였는데 1995년에는 1975명이 이용하였다.

혹사병의 창궐이래 에이즈만큼 인간사회에 다양하고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킨 병이 없는 것 같다. 에이즈만큼 병이 보고된 이후에 발병원을 빨리 발견하고도 치료법 발견이 이토록 지연되고 있는 병도 없는 것 같다. 에이즈만큼 환자와 그 가족들을 철저한 절망속에 빠뜨리는 병도 없는 것이다.

이번 에이즈회의의 폐회식때, 남편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잠비아 태생 여성의 연설은 전세계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임과 동시에, 에이즈 예방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운동을 하는 분명한 동기가 됨을 새롭게 느끼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A



두려움을 느끼는 간호행위를 조사한 결과, 모두가 성경험 문진과 내복약 투여시에는 불안을 느끼지 않은 반면, 50%에서 에이즈 환자 수술전 면도와 수술후 드레싱때, 74%는 에이즈 환자에게 정맥주사할 때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향후에 더 자세한 조사를 통하여 간호사들이 어떠한 때 무엇때문에 불안을 느끼는지가 분석되고 교육되어야 에이즈 환자에 대한 간호가 확충될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조사들의 결론이었다.

에이즈 감염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었으며, 2%는 신규채용시 에이즈 감염자에게 해택을 줄 목적으로 선별검사를 하고 있었다. 70%는 직장에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들중 59%는 에이즈를 일종의 장애로 취급하고 있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보건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직장내 에이즈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